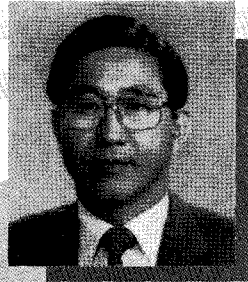


수의사의 사회적 활동과 수의학교육의 위기



백 영 기 (譯)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譯者 主

이 글은 최근 지방대학의 수의학과 통폐합 등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수의학의 현실에 대해서 마포대학 수의학과 다카하시 미쓰기 명예교수의 글을 번역한 것으로 6년제의 실사가 20년이나 지난 일본의 현실을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21세기에 이룩할 커다란 역할

일본에 있어서의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으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사회를 지탱하는 그늘진 분야에서 비교적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식량문제, 사회복지 문제를 비롯하여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농림수산물분야 : 소, 말,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 진료, 가축전염병의 방역, 가축의 질병에 관한 시험과 연구, 동물약품의 검사, 약사감시, 어병에 대한 대처 등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산아제한에 따른 자녀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의 부족, 축산물의 자유무역화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가 염려된다.

세계적인 인구의 증가, 발전도상국의 생활수준향

상에 따른 식량난이 예상되는 21세기 전반기에는 일본에 있어서의 동물성 단백질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붕괴해서는 않된다.

한편으로는 가축의 개량, 즉 계통번식, 유전자의 교환, 또는 크로닝의 연구에 의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대량생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물의 저하에 따른 새로운 방법에 의한 축산물의 생산은 인간이 직접 먹는 식품이기에 생산현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위생관리와 품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공중위생분야 : 도축검사에 의한 식육 등의 안전성 확보, 광견병예방과 인축공통전염병의 예방, 식품위생감시와 지도, 환경위생감시와 지도, 인축공통전염병의 시험과 연구 등이다. 이 분야는 유럽과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식육, 축산제품 또는 동물의 검역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로부터의 전염병침입예방,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오늘날과 같이 유통기구가 복잡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학술적인 향상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가동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upervisor의 양성이 시급하다.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구조

소동물임상분야 : 개와 고양이, 조류, 엑소틱에 니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반려동물의 진료가 주체이지만 이 분야에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되어 일반 사회에서 널리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가족계획에 의한 산아제한, 고령화사회에서의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사는 보람 찾기,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융화, 그리고 생명윤리의 교육에 카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의학과 다른 동물의학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사회로부터 반려동물의 광범위한 영역의 진료, 고령화 또는 질병에 대한 수준높은 의료의 요구가 많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의 졸업전과 졸업후 교육의 충실화, 전문의 제도 또는 평생 교육 등의 학술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야생동물분야 : 동물원 동물의 진료, 희귀동물의 보호, 멸종되어 가는 동물의 보존 등에 관한 연구이다. 야생동물은 환경의 악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발과 함께 환경의 파괴에 따라 멸종되어 가는 야생동물의 문제, 서식하고 있는 땅에서 쫓겨 민가근처를 떠돌아 다니는 야생동물의 교통사고, 전염병의 만연이나 과보호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등, 생물전체를 포함하는 환경악화의 카다란 지표가 된다.

생활주변의 환경에서부터 지구상의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의 지표로서의 야생동물의 생태, 질병의 치료 및 종족의 보존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강요되고 있다.

동물애호관계분야 : 선진국에서 동물애호의 보급은 그 나라 사회문화의 바로미터로 되어 있다. 동물애호의 사상, 생명윤리의 보급, 반려동물의 사육상담, 동물개재료법 등은 사회복지활동의 일환이다. 일본에 있어서 동물의 사육은 총세대수 약 845만 세대의 약 50%이다. 앞으로는 자녀의 감소,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사회구성의 변화로 동물의 사육두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경민족인 일본인의 동물사육과 동물애호에 대하여는 유럽이나 미국의 사회와 다른 일본 독자적인 사람과 동물의 관계학을 발전시키는 교육과 지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파라메디칼 분야 : 동물과 인체의 약품의 개발과 그 안전성의 확보, 의학에 있어서의 실험동물의 관리 등이며 의학과 수의학의 학제영역이기도 하다. 이 분야에서는 동물실험에 의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의 판정 또는 마우스, 랫트, 토끼, 원숭이 등의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및 균일한 개

체의 공급으로 의학, 생물학 및 수의학의 기초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금후에는 이식장기의 개발, 인슈린 등의 생물학적 제재의 개발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와 함께 그 안전성과 윤리면에서의 확립도 서둘러야 할 과제로 되어 있다.

여자학생이 차지하는 커다란 비율

이와 같이 수의사의 사회적인 역할은 의학과 달리 여러 방면에 걸쳐 있으며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학술의 향상과 사회적 지도성 또는 사회윤리 문제가 대두되며 다면적인 교육의 질적향상과 연구의 발전이 크게 요망되고 있다. 수의사의 양성은 국립 10개 대학, 공립 1개 대학, 사립 5개 대학의 수의학부 또는 농학부 수의학과에서 교육과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수의학 계열의 입학지원자는 1965년경부터 점차로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국, 공, 사립대학 모두가 몇십배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인기가 높은 학과로 되어 있다.

젊은 세대가 수의학과에 매력을 느끼는 커다란 이유는 동물이 좋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공생이라든지 환경문제 또는 야생동물, 그리고 21세기는 생물학의 세대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나라의 경제, 사회문제의 발전에 비례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 또한 1975년경부터 여자 학생의 입학자가 많아지고

지금은 어느 수의계대학에서도 여자의 비율이 50~6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의 수의학교육은 패전후의 근본적 학제 개혁 때 GHQ에서 의학, 치의학과 같이 6년 교육을 권고 받았으나 그 당시의 사회정세 때문에 4년제의 대학교육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부흥과 더불어 식육을 비롯한 축산제품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사육두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와 아울러 동물식품의 위생관리도 매우 긴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전부터 국제적으로 수의학교육을 6년제로 하지 않았던 실책을 반성하면서 일본수의사회와 그 당시의 농림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부성에 수의학교육의 연장을 연장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여 왔으나 법적인 개정은 곤란하였다.

수의학교육의 연장연장에 관한 요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후에 약 20년간에 걸쳐서 계속 되었으나 1971년에 일본학술회회가 총회의 결의로 일본정부에 수의학교육을 6년제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문부성과 농림성에 조사회가 구성되었고 잠정적으로 수의사법의 일부분을 개정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적립방식에 따른 수의학교육의 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어서 1983년에 학교교육법의 일부분개정으로 수의학교육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같은 6년

제로 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폐지하여 4년제의 박사과정으로 되었다. 이때에 국공립대학 3개교와 사립대학 5개교는 단독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하였으나 국립대학 8개교는 긴급피난적으로 동쪽과 서쪽에 거점대학을 두고 연합대학원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둘러야 할 수의학교육의 개혁

수의학 교육연한 연장의 전제로 그 당시에 국립대학을 재정비하여 학부교육을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형식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 대응하여 6년제 교육을 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시설정비와 강좌수 및 교원수의 충족을 하지 못한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6년제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은 전문교육시간이 약 2배로 증가하였을 뿐, 교육내용은 충실화되지 않고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입학한 학생에게는 매력있는 동물의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연구를 기대하면서 난관을 뚫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내용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수의과대학에는 인턴제도와 레지던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수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들의 직장에서 졸업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전문기술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는 6년 교육을 받은 수의사에 대한 비판이 높고 현장의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EU의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수의학교육이 통일화되고 가축을 비롯한 동물의 질병 예방, 치료, 전염병의 방역, 식품위생의 감시, 검역 등에 대하여 통일화된 교육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검토를 서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의학교육의 통일화가 이루어지면 일본의 무역과 검역 또는 수의학정보의 수집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위에 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수의학교육은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EU 수의학교육의 통합을 쉽게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동아시아는 완전히 낙오될 위험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유럽과 미국의 수의학 교육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부터도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일본의 수의학교육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재편성 준비를 서두르고 교육의 내용을 전환하여 유럽과 미국의 수의학 교육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외로부터의 비판을 거세게 받게 되어 일본의 수의학교육은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Nature지의 뉴스에도 보도되었듯이 일본의 수의학교육의 개혁이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